

## 『묘승정경』 연구사

서정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 국문초록

『묘승정경』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제작된 위경(僞經)으로, 천태종과 선종을 이해하는데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다. 다만 수, 당 시대 이후 누락된 결본(缺本)으로 근래까지 경전의 전모를 알기 힘들었다. 현대, 돈황사본에서 『묘승정경』의 사본이 나오으로써 관련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묘승정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묘승정경』의 사본과 번역들을 개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묘승정경』이 단순한 결본이 아니라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실제 티베트대장경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관련 사본 5종(한문본 3가지, 티벳어본 2가지)의 서지학적 사항도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본의 여러 교정들과 과단을 비교 및 분석하고 현대어역 2 가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의 『묘승정경』 연구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를 80년대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어 소개하였다. 80년대 이전에는 『묘승정경』의 실체가 밝혀진 이후, 티베트어로 번역된 사본까지 발견되면서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시도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들은 그 시도와 전망을 그리는 것으로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한국에서 『묘승정경』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대되는 『묘승정경』의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조 선관과 천태학의 두 분야에서 『묘승정경』은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티베트의 전승과 관련하여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 『묘승정경(妙勝定經)』, 위경(僞經), 문헌학, 선정(禪定), 천태종(天台宗), 닝마파(Nyingma派), 남북조시대

## I. 들어가는 말

『최묘승정경(最妙勝定經)』(이하 『묘승정경』)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제작된 위경(僞經)으로 『대주록(大周錄)』에서 진경(眞經)으로 판단된 적이 한 번 있으나 다른 경록류에서 한결같이 위경으로 판단했던 것을 상기할 때, 위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경전은 천태종과 선종을 이해하는데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다. 다만 수, 당 시대 이후 누락된 결본(缺本)으로 근래까지 경전의 전모를 알기 힘들었다. 현대, 돈황사본에서 『묘승정경』의 사본이 나오으로써 관련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묘승정경』이 주목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천태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천태종에서는 빈번히 이 경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후대에 있어서는 산실되었다. 이제 다시금 경전이 발견됨으로서 천태종학의 작은 여백을 채우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묘승정경』이 티베트어역(譯)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이 티베트에서 진경으로 이해되어 번역이 된 것이다. 티베트불교가 인도불교의 적자(嫡子)라는 생각에 다소 주목받지 못한 중국불교와 티베트불교의 관계를 제고하는 데 귀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묘승정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묘승정경』의 사본과 번역들을 개괄하고, 둘째 현대의 『묘승정경』 연구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묘승정경』 및 티베트어역 위경들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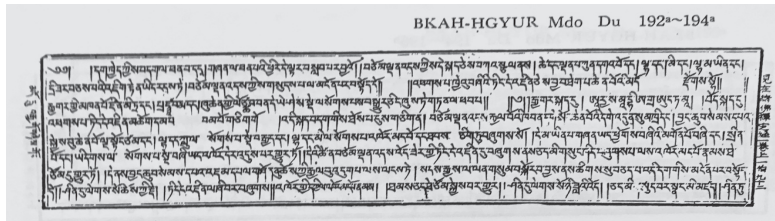
## II. 『묘승정경』의 사본 및 교정과 번역의 현황

### 1. 『묘승정경』의 사본현황

『묘승정경』은 여러 경전목록<sup>1)</sup>을 통해 위경이라 판단되었으며, 또 장중결본(藏中缺本)으로 알려져 있었다. 다만 이 결본이라는 단어는 한역대장경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묘승정경』이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전승<sup>2)</sup>되어 왔고, 실제 『티베트대장경』 북경판(北京版)의 불설부(佛說部, 혹은 甘殊爾, Bka-gyur)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의 책임 하에 대곡(大谷)대학이 소유한 북경판 사본을 영인 및 편집한 『서장대장경(西藏大藏經)』을 참조하면 『묘승정경』은 불설부 중 제경부(諸經部, Mdo-sna-tshogs)에 No.805로 수록되어 있다. 『묘승정경』의 티베트 역 경명은 ‘Hphags-pa tin-ñe-hdsin mchog-dam-pa(聖最妙勝三昧)’이고, 이 경명을 환범(換梵)하여 ‘Ārya-samādhi-agra-uttama’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티베트어의 번역은 역자미상이라 한다.<sup>3)</sup>

티베트에서 이 경전이 연구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의 대장경에는 편입하여 경전을 전승하였다. 반면에 『묘승정경』을 연구하고 실제로 사상에 수용한 중국불교계에선 이 경전을 산실했다는 점이 대조된다.



〈그림 1〉 『묘승정경』 티베트본

본 연구는 불교학연구회가 2017년도 가을에 개최한 ‘대승불교 교학과 현대적 응용 발표회’에서 연구자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II. 『묘승정경』 연구사’를 보완 및 확장한 것이다.

- 1) 경전목록과 위경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에 정리되어 있다. 이병욱(2011), 163-70.
- 2) 티베트의 가장 오래된 텐카르마목록(9세기 초)에는 『묘승정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으로 『묘승정경』의 티베트역은 9세기 초 이전으로 소급되지는 않을 듯하다.
- 3) 「目錄」(西藏1, 123); 실제 사본의 오른쪽 상단에 표기된 경전의 한자표기는 見在諸佛禪定經(定는 定的 同義異字)이다. 『妙勝定經』(西藏6, 177-80).

이 티베트 본의 전승이 알려지지 않은 채, 동아시아에서 『묘승정경』은 천태(天台)의 전적 중에 인용된 위경(僞經)이자 산실된 경전으로만 생각되어 왔다. 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은 세끼구찌 신다이(關口眞大)가 돈황사본 「복신 330호(北新330號)」를 『묘승정경』으로 특정한 것에서부터다.

대곡탐험단은 돈황사본의 현황을 1920년 소화법보목록(昭和法寶目錄)을 통해 학계에 발표<sup>4)</sup>하였고, 세끼구찌가 이 목록에서 『최묘정승경(最妙定勝經)』이라는 제목의 사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명이 『묘승정경』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 세끼구찌는 바로 당시 「복신 330호(北新330號)」를 소장하고 있던 휘순(旅順)박물관에 가 직접 사본을 확인하여 이를 『묘승정경』이라 특정하였다. 그리고서 이 사실을 1950년에 발표<sup>5)</sup>하였다. 이 사본은 현재 북경도서관으로 소장처를 옮겼다.

이후 「북임 1757호(北臨1757號)」, 「등9, 북8693호(騰9, 北8693號)」와 티베트어로 필사된 두 가지 사경본이 『묘승정경』으로 확정되었다. 「북임 1757호」, 「등9, 북8693호」와 「복신 330호」는 후자가 완전한 사본인 것에 반해 전자 2종은 결락된 부분이 많고 다소 오자(誤字)가 많은 것이라 한다. 이 사본 또한 현재 북경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 현대에 작성된 교정본들은 모두 이 두 사본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 자료를 사진이나 영인상태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sup>6)</sup>

『묘승정경』의 티베트어 사경본은 P.102와 S.198이 있는데, 이를 최초로 보고한 것은 오바타 히로노부(小島宏允)이다.<sup>7)</sup> 펠리오본(Pelliot本)인 P.102는 국제돈황프로젝트의 이미지파일 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스타인본(Stein本)인 S.198은 이미지가 제공<sup>8)</sup>되지 않아 사본의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티베트어 사경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S.198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진이나 영인된 자료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리오넬 질(Lionel Giles)가 작성한 대영박물관 소장의 스타인본목록을 통해 S.198의 사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의 편집에서 S.198의 번호는 4,862번이고, 제공되는 정보에 따르면 사본의 사이즈는 일반적

4) 정확하게 돈황사본은 소화법보목록 중 돈황본고일경론장소병고사경목록(燉煌本古逸經論章疏并古寫經目錄)에 수록되어 있다.

5) 關口眞大 1950, 1-18, INBUDS에서 재인용(關口慈光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慈光은 關口の 범명이다.); <http://tripitaka.l.u-tokyo.ac.jp/INBUDS/search.php?m=sch&a=&uekey=%E9%97%9C%E5%8F%A3%E6%85%88%E5%85%89&ekey1=author&lim=20>

6) 사본의 현황 및 내용은 다음을 참조. 『妙勝定經』 「解題」(藏外.1, 338); 曹凌(2011),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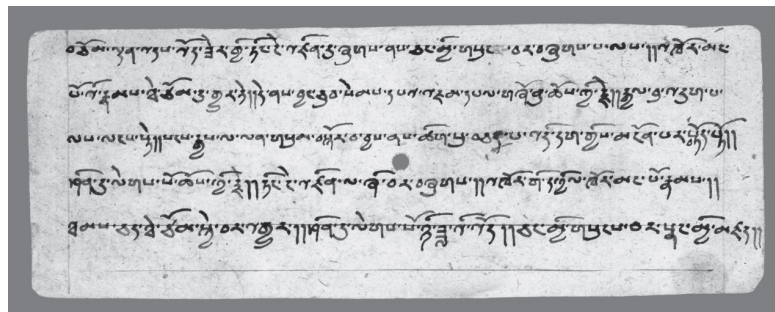
7) 小島宏允 1975, 668.

8) 스타인본을 영인한 『英藏敦煌文獻』에도 S.197에서 S.201까지가 결락되어 있었다.

(w.30cm×h.6½吋)이나, 발견당시의 보관사항이 좋지는 못했던 듯하다.<sup>9)</sup> 그리고 이 목록은 경전의 명칭을 난조분유(南條文雄)의 목록<sup>10)</sup>이나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에만 의존했기에 이 두 가지에 모두 들어가지 않은 『묘승정경』이 사본의 정체인지는 몰랐던 듯하다. 제목도 내용도 없이 사본의 서지학적 사항만 적혀져 있다.

다만 야마구치 즈이호(山口瑞鳳)가 작성한 『스테인蒐集チベット語文獻解題目錄』을 통해서 활자화된 S.198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1)</sup> 하지만 이 자료도 사본의 전체 내용을 활자화 한 것은 아니고,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 몇 행만을 수록하고 나머지를 모두 생략한 것이었다. 그리고 야마구치는 이 사본의 제목을 북경판과 비슷한 ‘Ārya-samādhi-agra-uttama’라 환범하되, 한어명칭은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아마 야마구치도 이 경전이 『묘승정경』이었는지는 몰랐던 듯하다. 야마구치의 목록은 오바타가 이미 S.198이 『묘승정경』임을 특정한 이후에 나온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다소 완전치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S.198 제목을 고려할 때, 북경판에 입장된 『묘승정경』에 가까운 것 이라고도 보인다.

펠리오본에 남아있는 『묘승정경』 P.102는 h8.7cm×w23.7cm사이의 종이양면에 잉크로 사경된 것이며 총 59장, 117면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2)</sup> 사본의 상태는 아주 훌륭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사본의 경명은 ‘Ting nge ‘dzin mchog dam pa’i mdo’라고 되어 있어 있고, ‘Samādhi-agra-uttama-sūtra’라고 환범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 경명은 앞서의 티베트대장경의 경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림 2〉 『묘승정경』 펠리오본.

9) Lionel Giles 1957, 144; 이 목록은 국제문화프로젝트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다만 원래 목록이 제공하는 8,102개의 사본정보 중 No.1,397까지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IDPbl.uk>.

10) Nanjio Bunyiu 1883.

11) 山口瑞鳳 1978, 134f.

12) 이미지 상 상철(上徹)인 것 같다.

『묘승정경』의 사본은 이와 같이 각각 세 가지의 한문본과 티베트본이 있다. 이 모두 돈황에서 발견된 것이며, 원래 『티베트대장경』에 입장(入藏)되어 있었기에 명확한 의미에서 결본은 아니었다.

## 2. 『묘승정경』의 교정 및 번역

이와 같은 사본들을 교정(校訂) 및 발표한 결과들을 발표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먼저 세끼구찌의 교정이 처음 위치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끼구찌는 「복신 330호」를 『묘승정경』이라 확정한 연구를 1950년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후에 1964년 『天台止觀の研究』에 재수록 되었다.<sup>13)</sup> 세끼구찌는 표점 외에 사본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혹 오자라 생각되는 것도 각주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서 1977년 『만속장경(卍續藏經)』에 『묘승정경』이 입장<sup>14)</sup>되었다. 이 교정 또한 「복신 330호」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만속장경』의 수록본은 「복신 330호」의 자구를 교정한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세끼구찌의 발표보다 시대는 늦지만 오히려 정확도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묘승정경』의 편집만 같은 책의 다른 경전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어떤 문제에서 편집상 차이가 생긴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두 교정의 발표 이후 1995년 중국과 일본의 공동연구로 발간되고 있는 『장외불교문헌(藏外佛教文獻)』 권 1에 『묘승정경』이 수록되었다. 이 수록본은 방광창(方廣鎔)의 해제와 더불어 「복신 330호」에 「복임 1757호」를 참조하여 교정한 것으로 교정본 중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표점과 관련하여 세끼구찌의 것이 좀 더 매끄럽게 끊어 읽힌다. 그리고 방광창은 2회에 걸쳐 『묘승정경』이 티베트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돈황에서 발견된 사본번호(P.102, 프랑스 국가도서관 소장)만 제시하고 있다. 왜인지 모르지만 방광창은 S.198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15)</sup>

세끼구찌 및 방광창의 연구를 이어받아 『묘승정경』의 사본연구를 진척시킨 것은 이자키(猪崎直道)이다. 그는 방광창의 허가를 받아 북경대도서관 소장의 「복신 330호」와 「복임 1757호」를 북경도서관에서 확인한 후, 다시 또 위 두 학자의 교정을 바탕으로 다

13) 關口眞大 1950, 1-18; 1969, 379-402; 다만 이 1950년의 발표에 『묘승정경』의 교정이 함께 발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INBUDES를 통해 확인한 바 『燉煌出土最妙勝定經考』는 20쪽도 되지 않는 분량이기에 교정본까지 수록되어 있을지 의문이다. 부록과 같이 제시되었는지도 모르지만,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淨土學』이 마침 24권부터 소장되어 있어 확인할 수가 없었다.

14) 『妙勝定經』(卍.150, 755-62).

15) 『妙勝定經』(藏外.1, 338); 『돈황학대사전』 2016, 1412; 후자에는 전자에 대한 다소의 보충이 있다.

시 자신만의 판본을 만들었다.<sup>16)</sup> 특히 각 판본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묘승정경』의 사본 및 교정이 발표됨으로 그 연구 및 번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고 먼저 번역된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묘승정경』의 최초 현대어 역은 프랑스에서 2002년에 발표된 중국불교연구총서인 ‘*Bouddhisme et lettrés dans la Chine médiévale*’에 수록된 파울 매그닌(Paul Magnin)의 『묘승정경』 연구와 함께 진행된 번역이다.<sup>17)</sup> 파울의 번역은 세끼구찌의 『天台止觀の硏究』에 수록된 교정본<sup>18)</sup>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번역은 『장외불교문헌』의 교정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이다. 이 번역의 과단 및 연구의 특징은 다음 절과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정원은 위와 같은 교정본들을 참조하여 교감본(校勘本)을 작성하였다. 이 교감은 『장외불교문헌』을 저본으로 하여, 세끼구찌의 교정, 『만속장경』의 교정사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모두 각주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는데, 다만 교정본들을 다시 교감한 것뿐이어서 다시 이를 바탕으로 한 더 완전한 교정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교감을 바탕으로 『묘승정경』의 과단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 과단에 따른 우리말 번역을 시도하였다.<sup>19)</sup>

### 3. 『묘승정경』의 과단

『묘승정경』의 연구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짧게 경전의 과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묘승정경』의 과단을 나눈 것은 세끼구찌와 파울, 그리고 조룽(曹凌)이다. 세끼구찌는 이 경전이 명확히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으로 삼분(三分)되며, 정종분의 내용은 ‘세존과 아난의 문답’, 그리고 ‘500비구의 선정’으로 양단된다고 한다. 그리고서 말법시대가 설명되는 부분부터 유통분으로 보고 있다.<sup>20)</sup> 다음 장에 소개할 오지연의 연구도 이 과단을 따르고 있다고 보인다.

파울은 「Introduction(서론)」, 「Énumération graduée D’actes Méritoires(점진적인 공덕의 열거)」, 「Supériorité du *Chanding*(선정의 우월성)」, 「Nature et efficacité du *Chanding*(선정의

16) 猪崎直道 1998, 312-28.

17) Paul Magnin 2002, 229-99.

18) Paul Magnin 2002, 319-22; 關口の 교정본이 그대로 실려 있다.

19) 서정원 2017, 178-224.

20) 關口眞大 1969, 379-402.

본질과 그 효용)」, 「Les cinq phases du Déclin de la Pratique Religieuse(쇠퇴의 다섯 가지 단계와 종교적 실천)」의 다섯 개 단락으로 『묘승정경』을 과단하고 있다.<sup>21)</sup> ‘서론’과 ‘쇠퇴의 다섯 가지 단계와 종교적인 실천’은 서분과 유통분의 내용을 지칭하며, 세끼구찌와 다르게 정중분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세끼구찌의 ‘500비구의 선정’과 ‘선정의 본질과 그 효용’이 동일하기에 파울이 ‘점진적인 공덕의 열거’와 ‘선정의 우월성’이라 분단한 내용은 ‘세존과 아난의 문답’을 다소 자세히 나눈 것일 뿐이다.

조룡은 『묘승정경』의 회중을 설명하는 부분이 서분이고, 대중에게 경을 부촉하는 부분만을 유통분이라 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중분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말법시대가 설명되는 부분을 모두 정중분에 포함시킨 것이기에 위 두 과단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중분을 양단하고 있는데, ‘세존과 아난의 문답’, ‘500비구의 선정’을 합하여 한 부분을 이루고, 나머지 말법시대의 설명이 한 부분을 이룬다. 따로 양단의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다. 편의상 정중분1, 정중분2로 조룡의 과단을 지칭하겠다.

서정원은 『묘승정경』을 위와 동일하게 서분, 정중분, 유통분으로 삼분하되, 유통분을 다소 다르게 보았다.<sup>22)</sup> 위의 세끼구찌와 파울의 과단은 모두 말법사상이 설명되는 부분부터를 유통분으로 보았다. 명백히 경전 안에서도 ‘世尊, 如是妙法, 如來滅後幾時在此惡土流行?’<sup>23)</sup>을 시작으로 말법사상이 설명되기에 여기서부터 유통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유통분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이 있으며, 본 경전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선정만이 아니라 말법사상 자체에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음으로 이를 정중분으로 올리고, 뒤에 세존이 본 경전을 부촉하는 부분만을 유통분으로 보는 것이 사상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상의 세 과단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과단에 따라 간략하게 경전을 요약하고 경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서분은 세존께서 출정(出定)하신 후 선정을 찬탄하시자, 아난이 이에 의문을 품고, 어찌서 선정을 찬탄하시는지를 여쭙며 시작된다.

21) Paul Magnin 2002, 272-99.

22) 서정원 2017, 199-201.

23) 『妙勝定經』(藏外.1, 345).



과단	關口眞大		Paul Magnin		曹凌	서정원
경전의 내용 <sup>24)</sup>						
오사(五事)의 실시 및 아난의 설법요청	서분		서분		서분	서분
선정의 공덕을 찬탄	정중분	문답	정중분	점진적 공덕 선정의 우월	정중분1	정중분
비구대중에게 선정을 설함		500비구		본질과 효용		
말법시대와 선정					정중분2	
법의 부족 및 대중퇴향	유통분		유통분		유통분	유통분

〈표〉 『묘승정경』 과단의 비교

이에 정중분으로 들어가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의 공덕과 선정을 비교하여, 선정의 훌륭함을 크게 칭찬하신다. 이에 선정이 없는 비구 500명이 어떻게 선정을 성취하면 되는지를 여쭙고, 세존께서는 관(觀), 제(除), 입(入), 사(捨)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신다. 이 네 가지 방법에 사선(四禪) 등, 법수(法數) 4와 관련된 모든 제법들이 포함된다고 설하신다. 가장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념처(四念處)이다. 이 방법을 통해 500비구는 선정을 얻고 그 공덕으로 목건련(目犍連)과 같은 신통(神通)을 얻는다. 추가적으로 세존은 자신의 멸도 후 도래하는 말법시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하신다.

이런 말법시대가 오더라도 이 『묘승정경』을 굳게 지킬 것을 설법처의 회중이 다짐하면서 유통분이 마무리 된다. 이상으로 경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 경전에 대한 현대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경전의 내용 칸은 서정원의 과단명을 따름.

### Ⅲ. 현대의 『묘승정경』 연구

#### 1. 1980년대까지의 연구

『묘승정경』에 대한 연구는 앞 절에서 누누이 설명했듯이 세끼구찌로부터 시작된다. 세끼구찌는 학계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전후(戰後) 최대의 천태학자라 할 수 있다. 그가 1950년에 최초로 『묘승정경』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1964년 『天台止觀の研究』에 재수록<sup>25)</sup> 하였는데, 이 『天台止觀の研究』는 오시팔교(五時八教) 폐지 논란 등, 천태학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책이었다. 이 책이 천태학자 및 중국불교 전공자들에게 필독되면서 『묘승정경』에 대한 정보가 널리 유통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세끼구찌는 자신이 『묘승정경』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또한 자신이 확인한 사본과 천태전적에 인용된 『묘승정경』의 내용이 일치함을 보여 사본이 『묘승정경』임을 확정한다. 그리고서 경록 상에 나타난 경전의 평가를 다루고, 경록의 연대와 『묘승정경』과 慧思(CE 515-577)의 관계를 고려해 이 경전이 515년에서 535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묘승정경』과 비슷한 경전인 『최묘초교경(最妙初教經)』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묘승정경』에 대한 문헌적 탐구를 마치고, 사상연구로 정종분, 유통분을 해설하고 있다.

이런 세끼구찌의 선구적 업적 위에 『묘승정경』을 거시적 시각에서 주목하는 연구들이 두 편 확인된다. 먼저 토오도오 교오순(藤堂恭俊)의 「シナ仏教における危機観」은 남북조에서 수당시기의 불교계가 가진 위기관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특히 3장에서 위경의 범멸사상을 다루고 있다. 토오도오은 『묘승정경』의 말법사상을 『법멸진경(法滅盡經)』 및 『상법결의경(像法決疑經)』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 세 위경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북조 및 수당시기의 불교이해라는 거시적 목표에 위경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sup>26)</sup>

오바타는 「チベットの禪宗と藏譯偽經について」에서 티베트어로 번역된 선종의 위경들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티베트어로 번역된 중국의 위경은 아홉 가지<sup>27)</sup>인데, 발표자가 생각하기에 이 아홉 가지의 위경들과 선종과의 관계가 중국에서도

25) 관구의 연구에 대해서는 주13) 참조.

26) 藤堂恭俊 1961, 53-57.

27)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 『법왕경(法王經)』, 『법왕경주석(注釋)』, 『대불정경(大佛頂經)』, 『대통방광경(大通)

명확히 확인될까라는 의문이 있다. 또 『묘승정경』을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사건인 삼예의 논쟁과 연결시키는 것이 주목된다. 그는 삼예논쟁에서 중국선종을 대표하는 摩訶衍(CE ?)의 『대승정리결(大乘正理決)』에서 보이는 육바라밀(六波羅蜜)의 부정 및 불사불관(不思不觀)의 내용과 『묘승정경』이 서로 사상적 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8)</sup>

이런 단편적인 연구들 끝에 위경연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마키타 타이료(牧田諦亮)의 『疑經研究』가 1976년 발표된다. 이 연구는 위경에 대한 일반론을 개진하는 가운데, 돈황에서 발견된 위경에 대해 다루는 부분에서 짧게 『묘승정경』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어로 번역된 『묘승정경』의 번역자를 曇曠(CE 9세기 초 활동)이나 法成(Chos-grub, CE 9세기 중후반 활동)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sup>29)</sup> 다만 티베트어 『묘승정경』의 번역자를 두 인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부론하도록 하겠다.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은 1985년에 「禪籍解題」라는 일종의 선문헌 사전에서 『묘승정경』을 짧게 언급하고 있다. 야나기다는 『묘승정경』의 돈황출토 티베트어 사본을 오타니 컬렉션(Otani collection)에 속해있으며 그 번호는 No.805번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기로 보인다. 아마도 티베트대장경과의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거기다 티베트에서 『금강삼매경』의 유통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30)</sup>

##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 및 한국에서의 연구

이후 한동안 『묘승정경』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방광창이 『묘승정경』에 대한 해제를 작성하였다. 방광창은 중국과 일본에서 돈황문헌 및 위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로서 최근 일본 칠사고사경(七寺古寫經)연구프로젝트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해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많이 설명하였고, 서정원의 번역이 있다.<sup>31)</sup>

方廣經), 『범망경(梵網經)』, 『최묘승정경』, 『마명보살경(馬鳴菩薩經)』(『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다), 『선정서(禪定書)』.

28) 小島宏允 1975, 667f; 다만 小島가 말하는 摩訶衍의 사상은 오히려 『수습차제(修習次第)』에 나타난 摩訶衍의 묘사와 비슷하지, 『대승정리결』의 사상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묘승정경』의 사상이 불사불관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승정리결』에 나타난 摩訶衍의 사상은 북종선계통의 사상과 서명(西明)학파의 사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법상유식의 선사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수습차제』에 나타나는 摩訶衍의 사상은 사실 보당종(保唐宗)에 가까운 것이라 한다. 다음을 참조. 山口瑞鳳 1980, 377-408.

29) 牧田諦亮 1976, 340f.

30) 柳田聖山 1985, 463.

31) 서정원 2017, 179f.

방광창이 앞서 말한 칠사고사경의 연구를 위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이자키가 그에 『묘승정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와 같은 자극에 앞서 말한 이자키의 『묘승정경』 교정이 발표되었다. 그리고서 그는 『묘승정경』의 사상에 대한 아주 짧은 글 한 편을 발표<sup>32)</sup>하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바타가 제시한 선종이 작성한 위경들에 대한 연구를 몇 편 진행하였다.

2001년엔 파울의 『묘승정경』 연구가 발표되었다.<sup>33)</sup> 이 연구는 중국의 현학(玄學)과 귀족계층이 불교의 선정에 주목하였고, 이를 의식한 불교계가 선정을 강조하는 위경들을 작성하였으며, 그 중에 『묘승정경』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서 『묘승정경』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조릉은 2011년 위경사전인 『中國佛教疑偽經綜錄』을 편찬하였다. 이는 위경연구에 있어 마키타의 『疑經研究』 이상의 중요한 업적이다. 『묘승정경』에 한해서 말하자면 먼저 『묘승정경』의 새로운 사본으로 「등9, 북8693호」를 특정한 것이다. 그리고 『묘승정경』의 인용에 대하여 대체적인 조사를 한 것이다.<sup>34)</sup>

이상의 해외성과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연구들을 찾아보면 두 편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리영지는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蹟頌)』(이하 『행적송』)에 『묘승정경』이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sup>35)</sup> 다만 無寄(CE ?)가 『묘승정경』을 직접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경전의 인용도 ‘…佛去世後 一百年時 十萬人出家 九萬人得道…’<sup>36)</sup>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경전의 원문은 “於拘尸城滅度之後, 八十年中, 流行此法. 多有衆生塚間, 樹下, 思惟此法, 觀除入捨. 十億衆生, 九億得四沙門果.”이다.<sup>37)</sup>

『행적송』에서는 원문의 80년을 100년으로, 중생의 단위를 억(億)에서 만(萬)으로 바꾼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변화는 無寄가 『마하지관』에 인용된 『묘승정경』을 그대로 인용하였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인다.<sup>38)</sup> 天台智顓(CE 538-597)가 이와 같이 『묘승정경』을 변형하여 인용한 까닭이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에 설명되어 있다.<sup>39)</sup> 리영

32) 猪崎直道 1999, 268f.

33) Paul Magnin 2002.

34) 曹凌 2011, 197-203.

35) 리영자 1988, 266.

36) 『釋迦如來行蹟頌』 卷下, (韓.6, 517中): ‘佛去世後 一百年時 十萬人出家 九萬人得道’.

37) 『妙勝定經』(藏外.1, 345).

38) 『摩訶止觀』 卷10(大.46, 136下): ‘佛去世後 一百年 十萬人出家 九萬人得道’.; 혹은 『宗鏡錄(宗鏡錄)』에서의 인용일 수도 있다. 『宗鏡錄』 卷46(大.48, 686中): ‘佛去世後 一百年 十萬人出家 九萬人得道’.

39) 『지관보행전홍결』에서 智顓가 『묘승정경』의 말법의 기간과 중생의 숫자를 변경한 것은, 경전의 법수(法數)

자의 연구는 천대의 말법의식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다.<sup>40)</sup>

마지막으로 확인할 오지연의 연구<sup>41)</sup>는 앞서의 연구들이 천대에 미친 『묘승정경』의 영향을 지적하면서도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 다룬 것에 비해, 실제 천대전적에 인용된 『묘승정경』의 인용을 모두 찾아내고, 화엄계통의 인용도 찾아낸 매우 꼼꼼한 연구이다. 앞서 지적한 『행적송』의 『묘승정경』 인용문제도 이 논문을 통해 이해 및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묘승정경』을 제외한 돈황출토 위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위경자체에 대한 개론은 몇 가지 살펴 볼 수 있어도 돈황출토의 위경들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특징을 제공하는 연구가 국내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이기도 하다.

## IV. 향후 『묘승정경』 및 티베트어역 위경연구의 방향

### 1. 『묘승정경』연구의 필요성

#### 1) 남북조불교의 이해도모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묘승정경』에 대한 문헌적, 자료적 정리를 1차적으로 마무리 하고, 이 경전의 연구가 앞으로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할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묘승정경』의 연구를 통해 중국 남북조시대불교의 흐름 중, 특히 선(禪)의 새로운 해명이 열릴 가능성이 주목된다. 『묘승정경』은 전혀 다른 사상의 흐름—선경(禪經), 혹은 아비달마에 의거한 사념처(四念處)를 중심으로 한 선관흐름—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묘승정경』이 적어도 혜승이 스무 살인 CE 535년 이전에 성립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적어도 남북조 중기서 부터는 이 『묘승정경』이 성립될 사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묘승정경』의 사상적 특징은 크게 선정의 강조와 말법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선정의 강조라 할 수 있다.

남북조 중후기에 가장 주목되는 선관의 흐름은 아무래도菩提達摩(CE ?-528?)와 慧可

---

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다소 수정을 가한 것이다. 『止觀輔行傳弘決』 卷10(大46, 442中下).

40) 사족으로 『가산불교대사람』의 『묘승정경』 항목을 보면 『행적송』에 인용되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경전이 생각보다 많이 연구되어 있으므로 후에 ‘ㄷ’에 해당하는 『최묘승정경』이 실릴 때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가산불교대사람』 卷6 2004, 631.

41) 오지연 2011, 360-77.

(CE 487-593)인데, 이들은 『능가경(楞伽經)』을 바탕으로 한 선관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후대에 덧칠된 선종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보았을 때, 菩提達摩와 慧可의 선사상은 선정의 강조보다는 교학에 충분히 의거한 선관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같은 시기에 『묘승정경』을 만들어낸 어떤 일군의 선관의 흐름은 경전에 대한 참구, 즉 의해(義解)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선정이야말로 최고의 선법(善法)이라 주장한다. 『묘승정경』은 오백나한이라 하더라도 다문(多聞)<sup>42)</sup>이 바탕이며 그들에게는 선정이 없기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다문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비루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비유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 【오백나한】의 【다문에 의한】지혜를 보는데, 이는 마치 모기의 날개【다문지혜】로 해와 달【선정】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수미산을 오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또 배가 없이 큰 바다를 건너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또 날개가 꺾인 새가 허공을 날아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너희들의 지혜가 이와 같다.”<sup>43)</sup>

선종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현대에 들어와서는 후대 선종에 보이는 극단적인 선정의 강조가 菩提達摩나 慧可에게 비롯되지 않았음이 상기되고는 한다. 하지만 분명이 둘의 동시대에 오히려 이들과 공통하지 않은 세력 중에서 선정의 강조가 받아들여졌음을 『묘승정경』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묘승정경』의 선정의 강조가 菩提達摩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큰 특징이 있다. 바로 사념처관이다. 『묘승정경』에서 제시되는 여러 선정 중에서 사념처는 중심을 이루고 있다.<sup>44)</sup> 사념처는 본래 지관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선정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의미가 혜(慧)에 있다.<sup>45)</sup> 선정을 제일로 치면서도 그것을 사념처로 한정 짓는 것, 그것이야말로 『묘승정경』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아무튼 주로 달마종(達磨宗)<sup>46)</sup>과 천태지관(天台止觀)에만 집중되던 남북조시대의 선관

42) 교학을 추구함.

43) 『妙勝定經』(藏外.1, 342).

44) 다만 『묘승정경』의 사념처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 경전이 제시하는 사념처의 범상은 분명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아비달마적 형태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전승된 아비달마의 규범에 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 『妙勝定經』(藏外.1, 344); 서정원 2017, 65f.

45) 『俱舍論』 卷23(大29, 118下); 물론 분별설부(分別說部)와 같이 사념처의 본질을 염(念)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남북조에 통용되는 이해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6) 菩提達摩와 達磨宗의 達磨는 다른 인물이며 후자가 전자에 기대어 가탁된 것이라는 關口眞大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자와 후자의 달마표기를 다르게 하였다. 關口眞大 1967.

연구에서, 『묘승정경』은 아예 다른 영역의 출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 천태지관 연구와 관련한 고찰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묘승정경』은 남북조불교 이해에 독자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천태지관에 의한 작업뿐이었다. 기실 『묘승정경』을 제작한 어떤 선관의 세력이 있었다 하여도, 남북조 후기와 그 이후 실제 이를 자신들의 사상에 적극적으로 채용한 것은 慧思와 智顓뿐이다.

하지만 慧思와 智顓가 『묘승정경』의 사상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천태지관의 사상에 있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지 의문이 있다. 천태지관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와중에 분명 『묘승정경』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며, 천태지관의 조직과 성립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는 세끼구찌의 『天台止觀の研究』도 이런 역사적인 의미에서 『묘승정경』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慧思와 智顓의 사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이 경전의 천태적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 둘의 사상해명에 『묘승정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묘승정경』과 같은 선정의 강조는 교관일치(教觀一致)라는 천태학의 전제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慧思는 만년에 완성한 『법화경안락행의(法華經安樂行義)』에서 정심(定心)이던 산심(散心)이던, 『법화경』에 의지할 것을 강조하는데<sup>47)</sup>, 이는 산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던 『제법무쟁삼매법문(諸法無諍三昧法門)』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그런데 『묘승정경』에서는 산심, 난심(亂心)에 큰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다문이 정심이 아닌 난심을 낸다면 문제가 있다.<sup>48)</sup> 이는 『제법무쟁삼매법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sup>49)</sup>. 반면 『법화경안락행의』에서는 산심이라도 한 찰나, 한 찰나의 마음 모두 법화문자(法華文字)에 의지하여야 한다고 말한다.<sup>50)</sup> 이런 『묘승정경』과 慧思의 사상적 교착에 대하여는 평가를 미루지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 천태지관에서 『묘승정경』의 역할을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한다면 천태지관의 이해에 있어 새로운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47) 『法華經安樂行義』(大46, 700中).

48) 『妙勝定經』(藏外.1, 340).

49) 『諸法無諍三昧法門』 卷上(大46, 628上).

50) 『法華經安樂行義』(大46, 700中).

## 2. 티베트어역 위경과 『묘승정경』

지금까지 살펴본 『묘승정경』과 관련한 연구는 한문사본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마키타가 티베트어 사본의 역자를 추측하기는 했으나, 그 연구에서 『묘승정경』은 주변 일 뿐이고, 또 필히 고민해 볼 때, 해당연구에서 역자로 상정한 曇曠이나 法成이 진짜 『묘승정경』의 번역자일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曇曠과 法成은 모두 유식계통, 그것도 서명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들이 티베트어로 번역한 경론들은 대다수 범상유식의 것들이다. 『묘승정경』이 유식문헌군에 속하거나 관심이 있을만한 경전이라 사료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티베트어 『묘승정경』을 처음으로 특정한 오바타도 『묘승정경』의 번역자를 曇曠, 혹은 法成으로 추측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는 『묘승정경』과 삼예논쟁과의 관련성을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앞(주28)에서 보았듯이 굉장히 무리한 추측이다. 다만 摩訶衍이 서명학파와 어떻게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曇曠, 法成도 서명학파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를 이어야 할 『묘승정경』에서는 서명학파와 상통되는 견해도, 더 넓게 보아 유식의 논리와도 결부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티베트어 『묘승정경』의 연구는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특별히 『묘승정경』과 티베트불교를 연관하여 고민하는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연구자는 여기에서 돈황사본에서 발견된 다수의 선종관련 티베트어역 위경에서 다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바타가 말한 9가지의 티베트어로 번역된 선종위경<sup>51)</sup> 중에서 『묘승정경』은 텐카르 목록에는 없지만 후에 불설부로 편입된 유일한 경전이다. 적어도 이 경전은 티베트에서는 불교전래의 초전기가 아닌 중기 어떤 때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고, 이 경전이 한문에서 중역된 것이라는 표시도 없는 것이다. 아마도 티베트에서는 이 경전이 위경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꼭 티베트의 경우를 떠나서 방광창은 이 경전을 위경이 아니라 인도찬술부라 기록<sup>52)</sup>하고 있는데, 이자키에 의하면 방광창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sup>53)</sup> 이만큼

51) 주 27)의 아홉 경전 참조.

52) 『妙勝定經』 「解題」(藏外.1, 338).

53) 猪崎直道 1998, 312ff.



이 경전은 그냥 보았을 때, 위경이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전(佛典)으로서의 내러티브(narrative)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54)</sup>

『묘승정경』이 자신이 위경임을 충분히 감출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티베트 전승에 있어, 이 경전을 발굴하고 중요시하여, 결과적으로 대장경에 불설(佛說)로 편입시킬 수 있었던 세력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대장경의 성립에 있어 몇 안 되는 목록을 검토해 본다면 『묘승정경』은 북경판이 제작되던 시기(14세기) 이전에는 대장경에 편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돈황에서 9세기에 번역된 티베트역 『묘승정경』은 티베트 본토에서는 400년이나 지나서야 나타난 것이며, 특별한 전래과정이 기록되지 않은 바를 생각할 때, 이 경전의 등장이 매우 의심되는 것이다. 즉 이 경전은 티베트에 자연스레 흘러간 것이 아니라 토번국의 돈황 점령 당시에 번역이 되었다가, 토번이 후퇴하면서 티베트 본토에 정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은 것이며, 수 세기 이후에 누군가의 발견과 계획에 의하여 티베트에 유통 및 진경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된다.

연구자는 이런 것을 가능케 한 세력으로 닝마파(Nyingma派)를 예상한다. 이들의 중국선과 밀접한 관계와 매장서(埋藏書)라는 특유의 위경관(僞經觀)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한 추리이지 않을까 한다.<sup>55)</sup> 현 북경판 『묘승정경』과 S.198, P.102을 대조하여 본다면 이와 관련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sup>56)</sup>

## V. 나오는 말

마지막으로 위경의 연구와 『묘승정경』의 연구에 있어 전망되는 바를 제시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근래 일본 칠사(七寺)에 소장된 고사본이 새로이 발표되고 있으며, 또 그중에 위경이 매우 많아 혹 『묘승정경』의 새로운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고 목록을 살펴보았지만 해당하는 경전이 없었다. 다만 이 칠사고사본에 많은 위경들이 道

54) 최초의 위경이라 하는 『비라삼매경(毘羅三昧經)』도 진경이 아닐까 할만큼 탄탄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몇몇 위경은 그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이며 이에 『묘승정경』도 들어가는 것이다. 落合俊典 2015, 167f.

55) 닝마파와 중국선종, 그리고 매장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松本史朗 2009, 40f, 50f, 526-30.

56) 앞서 말한 것처럼, 북경판은 S.198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P.102과 S.198의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이며, 어떤 경로로 전승되었고, 어째서 P.102이 탈락했는가를 밝히는 것도 『묘승정경』 연구의 중요한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安의 최초 위경목록에 수록된 경전들로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이 위경중 대다수가 선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위경의 성립사에 있어 최초의 위경으로부터 『묘승정경』에 이르는 어떠한 중국적 요인, 특히 선정과 관련한 어떤 정신이 있다고 보인다. 이 요인을 밝히는 것이 위경의 해명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약호

『大正新修大藏經』	大.
『卍續大藏經』	卍.
『北京板西藏譯大藏經』	西藏.
『藏外佛教文獻』	藏外.
『韓國佛教全書』	韓.

1차자료(사본)

北新330號.

北臨1757號.

騰9, 北8693.

Pelliot No.102.

Stein No.198

2차자료

리영자

1988.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서울:민족사.

서정원

2017. 「天台智顓의 教觀一致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지연

2011. 「돈황사본 『最妙勝定經』에 관한 고찰」 『佛學論叢』 Vol.1. 서울:원각불교사상연구원.

이병욱

2011. 「중국역경사」 『역경학개론』 서울:운주사.

關口眞大

1950. 「燉煌出土最妙勝定經考」『淨土學』Vol.22 23. 東京:大正大學淨土研究.
1967. 『達摩の研究』. 東京:岩波書店.
1969. 『天台止觀の研究』. 東京:岩波書店.
- 藤堂恭俊
1961. 「シナ仏教における危機觀」『佛教大學研究紀要』Vol.40. 京都:佛教大學學會.
- Lionel Giles
1957.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Chinese Manuscripts from Tunhuang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 落合俊典
2015. 「의경(疑經)을 둘러싼 문제들」『대승불교의 아시아』. 서울:씨아이알.
- 牧田諦亮
1976. 『疑經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山口瑞鳳
1978. 『スタイン蒐集チベット語文獻解題目録』Vol.2. 東京:東洋文庫.
1980. 「摩訶衍の禪」『講座敦煌』卷8. 東京:大東出版社.
- 小島宏允
1975. 「チベットの禪宗と藏譯偽經について」『印度學仏教學研究』Vol.46 東京: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 松本史朗
2009. 이태승 譯. 『티베트 불교철학』. 서울:불교시대사.
- 柳田聖山
1985. 「禪籍解題」『禪家語錄2』. 東京:筑摩書房.
- 猪崎直道
1998. 「『最妙勝定經』考」『佛教學部論集』Vol.29. 東京:驅澤大學佛教學部研究室.
1999. 「偽經『最妙勝定經』とその思想について」『宗教研究』Vol.319. 東京:日本宗教學會.
- 曹凌
2011. 『中國佛教疑偽經綜錄』.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Paul Magnin
2002. "L'ORTHODOXIE EN QUESTION: UNE ETUDE DU SOUTRA DE LA CONCENTRATION LA PLUS PROFONDE ET SOUVERAINE (ZUIMIAOSHENG DING JING)" *Bouddhisme et lettrés dans la Chine médiévale*. Paris:Peeters.

## 사이트

인도학불교학논문데이터베이스: <http://inbuds.net>

국제돈황프로젝트: <http://IDP.bl.uk>

## A Study of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Jeongwon Seo

(PhD student,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takes a bibliographical approach to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pseudepigrapha from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explores related contemporary research,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First, the study bibliographically approaches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in three areas: copy, revision and translation, and resolution. Three copies of Chinese and Tibetan texts of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are considered; the study describes the process of discovering each copy and the condition in which each has been preserved. In terms of revision and translation, the study first examines three revised editions, and applies the assessments of the two textual bibliographies regarding the three revised editions. In terms of translation, the study finds one French and one Korean translation. Lastly, the study considers three types of resolutions, but they will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because two of the resolutions are almost identical from a general perspective.

The contemporary research regarding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demonstrates that despite the heightened attention given to the Tibetan translation of this scripture, the corresponding research is rather lacking. In addition, while there is an interpretation connecting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and the Council of Lhasa, there also seems to be confusion regarding this interpret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considers the citation of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in the *Seokgayeoraehaengjeokson*《釋迦如來行蹟頌》.

Lastly, the study suggests the relevance of Zen (禪) as a promising research field

regarding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and pseudepigrapha (偽經), especially the pseudepigrapha recorded in the list of Dào ān (道安 CE 314-385), the first pseudepigrapha, which illustrates the Zen tradition that led to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Moreover, the study shows the need to investigate further the effect of the *Zui Miao Sheng Ding Jing* on Tibetan Zen (Nyingma school).

**Keywords** : *Zui Miao Sheng Ding Jing*, Pseudepigrapha, Bibliography, *dhyāna*, Tiantai Buddhism, Nyingma school,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2018년 5월 7일 투고

2018년 5월 31일 심사완료

2018년 6월 8일 게재확정